

# 地域社會에 公共圖書館을 심자 (下)

—對民奉仕의 重要성과 그 方法—

曹 尙 鉉

(春川市立圖書館長)

## ■ 館外奉仕

以上 記述한 館內奉仕의 延長으로 住民 個個人의 生活에 直接적으로 作用해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奉仕, 마치 요즘 메이커들이 創案해서 盛行되고 있는 外販制度和 恰似하다고 해서 틀린 表現이 아닐 것이다. 即 工場에서 生産된 商品을 商店에 陳列해 놓고 顧客을 기다릴 사이없이, 直接 各 家庭이나 職場을 訪問하여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같은 販賣術의 發達로 많은 사람들은 商店이나 百貨店에 일부러 商品을 사러 갈 것도 없이 집에 가만히 앉아 마음에 드는 物件을 골라 잡게 되는 것이다. 또한 經營主들은 한술 더 떠서 그 代金도 一時拂이 아니라 月賦販賣라는 서비스를 同時에 하고 있다. 商品을 집에까지 갖다 주고 그 代金까지도 몇달로 나누어, 그것도 外務社員이 每달 直接 받아가는 2重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이와같이 商品이 도저히 안 팔릴 수 없는 條件을 提示하는데 장사가 안 될 리 없지 않겠는가?

마찬 가지로 오늘의 公共圖書館 奉仕는 時間에 쫓기며 살고 있는 住民이 知識을 얻으려 圖書館까지 오게 할 것이 아니라 知識을 住民 各 家庭에 圖書館이 直接 配達해 주어야 하는 그런 奉仕를 해야 하겠다는 말이다.

더구나 市民生活에 度外視되고 있는 우리의 公共圖書館의 立場에서는 특히 이와 같은 幅넓은 奉仕가 切實히 要求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 方法을 展開한다면 公共圖書館이 地域住民生活에 接近할 수 있는 좋은 契機가 될 것이다.

以上과 같은 館外奉仕를 展開함에는 地域의인 性格과 地理的 條件, 經濟的 合理性, 住民의 意思(希望)等 그 地域의 狀態를 十分 檢討해서 圖書館의 奉仕가 모든 地域內 住民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周到綿密한 計劃,

人員 그리고 機動力을 갖추어 全市의인 奉仕를 피할 수 있는 豫算의 確保없이 는 到底히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問題이다.

그러나 筆者가 論하고자 하는 것은 좀 힘은 들겠지만 自動車文庫 代身에 自轉車로 各 家庭에 圖書를 配達해 주어 읽게 하는 奉仕, 或은 團體貸出 같은 熱과 誠意만 가지면 할 수 있는 奉仕等 우리의 形便과 實情에 맞고 成果를 거둘 수 있는 館外奉仕를 展開하자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經濟事情이 그런 것을 가지고 豫算打 命만을 한뼘자 解決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便安하게 앉아서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뛰어나니며 땀흘리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 (1) 所藏資料 案內奉仕로서

住民이 家庭이나 職場에 앉아서 圖書館에 所藏된 資料를 알 수 있게 하여 必要로 하는 資料를 利用하게끔 하는 資料案內奉仕.

#### ㄱ. 目錄編纂配付

住民이 보고, 願하는 資料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所藏資料目錄을 作成, 各 洞이나 班을 通하여 各 家庭·職場에 配付함으로써 圖書館에 對한 住民의 理解와 利用을 促求하고 奉仕對象範圍를 넓힌다.

#### ㄴ. 新着圖書案內

館內外 揭示板을 利用함은 勿論, 地域社會에서 發刊되는 地方新聞 文化欄을 利用하여 週-1회씩 或은 放送局을 利用하여 週-1回 5分間程度 圖書館의 新着圖書目錄을 案內한다. 매스콤의 偉力을 우리는 잘 안다.

이와같은 方法의 新着圖書案內奉仕를 繼續하면 利用者들의 資料利用率은 높아지고 兼하여 住民들로 하여금 圖書館에 對한 認識을 높일 수 있는 二重效果를 올릴 수 있다.

#### ㄷ. 圖書館 要覽 配付

圖書館要覽을 만들어 利用者들 뿐만 아니라 住民들

에게 配付해 줌으로써 圖書館利用을 쉽게 하고, 圖書館을 案内하는 奉仕.

여기서 要覽 編輯者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① 어려운 文體를 避하고 쉬운 單語나 述語를 써서 누구나가 읽고 그 뜻을 一目瞭然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② 說明文이 簡單明瞭해야 한다. ③ 論說式의 文章을 쓰지 말고 數字나 圖表를 表示함이 좋고, ④ 寫眞은 鮮明해야 한다. ⑤ 複雜한 編輯을 삼가해야 한다. ⑥ 編輯은 利用者가 入館해서 圖書館을 利用하고 退館하는 順序대로 함이 좋다. ⑦ 꺾이나 其他 圖表는 立體感을 살려 보는 사람의 눈을 끌도록 할 것이며 特히 表紙等은 現代感覺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以上 要覽編輯에 있어서 일곱가지 方法을 提示한 것은 要覽自體가 圖書館의 P. R.이 되는 以上 모든 圖書館問題가 充分히 檢討 計劃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圖書貸出

館外貸出奉仕·家庭巡廻貸出·마을문고支援·職場文庫·移動文庫·團體貸出等을 實施하여 地域社會 末端에 이르기까지 圖書館의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奉仕를 展開하자는 것이다.

前述한바 企業에 있어서 外販制度和 같이 市民이 商品을 사야 하겠다는 計劃이나 意思는 없었으나 外務社員이 가지고 來訪한 라디오나 時計를 보고서 사지 않고서는 못배기게 하는 販賣術과 같이 冊을 한 아름 안고, 찾아가 그것도 無料로 봐 달라는데는 外面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ㄱ. 個人 圖書 館外貸出

一部 圖書館에서 圖書館利用者가 要求하는데로 圖書를 一定期間을 定하여 貸出해 주는 奉仕. 49個全國公共圖書館에 實施해야 할 일이다.

ㄴ. 奉仕 네트·워어를 만들자

自然部落의 小圖書館인 마을文庫를 設置한다거나, 設置되어 있는 마을文庫를 一定한 計劃下에 支援, 或은 協助하여 圖書館과의 距離가 먼 住民들에게 恒常 새로운 圖書를 읽게 하여 時時刻刻으로 變貌해가는 社會의 새로운 知識을 習得하도록 도와주는 奉仕.

이 외에도 地方行政의 末端 集約體인 各洞이나 面事務所에 移動文庫를 設置하여 體系的인 시스템을 만들어 圖書館奉仕의 네트·워어를 造成하여 住民에게 對民奉仕를 할 수 있다.

現在 全國에 設置되어 있는 4,674個의 마을文庫는 公共圖書館과 直接인 關聯을 맺어야 兩者는 보다 效果的인 奉仕를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 方法이 兩者共히 目標達成에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強調해 둔다.

이 問題는 앞으로 市·道立圖書館의 設置를 實現케 하여 一般 市·郡立圖書館과의 네트·워어를 造成하

는 問題도 包含해서 생각해 볼 일이다.

ㄷ. 家庭巡廻圖書貸出

各 家庭에 圖書를 配達해 주어 읽도록 奉仕하는 讀書普及運動이다. 많은 人員과 細密한 計劃, 豫算이 必要하다.

館外奉仕 1項에서 說明한 所藏資料案内奉仕로 이미 住民은 圖書館에 所藏資料를 낚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必要로 하는 資料를 申請받아 圖書를 貸出해 준다. 이 奉仕를 展開함에는 住民 個人을 相對할 것이 아니라 各 國民班長이나 洞長이 要求圖書를 住民으로부터 申請받게 하여 圖書館의 資料를 貸出·配達해 준다 면 많은 經費가 必要치 않게 된다. 貸出圖書量이 많지 않은 洞에 對하여는 圖書館職員이 直接 自轉車를 利用하여 配達해 준다면 地域住民과 서로 顔面이 생기게 되고 圖書館의 認識은 힘들이지 않고 높일 수 있다고 보아 紹介한다.

ㄹ. 職場文庫設置

30名程度 以上の 從業員을 가진 職場에 文庫를 設置하여 職業人에게 教養과 知識을 얻게 하는 奉仕로서 職場으로 하여금 文庫나 圖書室을 設置하도록 勸誘하거나 公共圖書館에서 文庫를 設置해 주는 奉仕. 이 職場文庫를 設置運營하면 該當 職場에서 많은 協助이 있게 된다.

이 職場文庫를 設置運營함에는 무엇보다도 그 職場 管理者로 하여금 職場文庫의 必要性을 認識 하게끔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이 方法으로 職場에 圖書館設置의 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

ㅁ. 團體圖書貸出

職場文庫와 같은 性質의 奉仕. 그러나 貸出期間이 짧고 讀書普及運動의 初步的인 方法이 라는데 差異는 있으나 大同小異한 奉仕이다. 工場의 從業員, 軍部隊將兵 或은 各 職場에 圖書를 團體로 貸出해 주어 餘暇處理를 도와 주는 奉仕.

ㅂ. 移動文庫設置

管內 公園·어린이 놀이터·海水浴場·驛待合室等에 年中讀書運動計劃을 수립하여 移動文庫를 設置, 住民이나 旅行者에게 餘暇를 善用케 하고 知識을 習得케 하는 서비스이다.

(3) 文化的 各種行事·集會活動

資料를 提供하여 住民들에게 知識을 習得케 하는 것만이 圖書館 奉仕의 全部가 아니다.

圖書館에서 主權하거나 協助할 수 있는 地域社會의 모든 文化的인 集會(세미나·展示會·攝影大會·鑑賞會·文化講演會·發表會……等)를 열어 隱然中에 住民들에게 教養과 知識을 補給시켜 주고 圖書館의 認識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매우 重要한 奉仕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集會에 參席하는 住民에게는 知識을 얻게

하는 한편 集會場所나 主管處를 알리는 行事, 아취나 플레카아드, 或은 포스터에 쓰여 있는 ××圖書館이란 圖書館名이 가끔씩 住民들의 눈에 뜨인다면 圖書館의 認識은 次次 住民生活에 深化될 것임은 事實이다.

各 文化·研究團體와의 紐帶強化에도 좋은 契機가 될 것이다.

#### (4) 圖書館 서어클活動에 依한 奉仕

讀書會 活動도 여기에 包含된다. 나아가서는 圖書館에 研究機構를 設置하여 住民을 參與케 한다거나 이 서어클에서 研究發表된 論文을 綜合하여 論文集을 發刊, 市民生活의 向上發展을 꾀하는 좀 아카데미한 奉仕活動도 있다. 特히 이와 같은 研究機構에서 取扱할 主題는 住民生活과 直結되어 있는 問題를 다루어 그들 生活에 密着시켜야 한다.

지나치게 高次的인 問題를 다루게 되면 서어클活動에 興味를 잃게 할 우려가 있을 뿐 더러 오히려 住民生活과의 間隔을 造成하게 될 可能性이 많기 때문이다.

以上 述한 奉仕方法中 몇가지를 除外하고는 거의가 本 春川市立圖書館이 實施하고 있는 業務들로서 이와 같은 奉仕를 圓滿히 展開하려면

- ① 奉仕對象을 넓히고 奉仕를 展開하기 爲한 P.R.이 必要하고.
- ② 아이디어 創案
- ③ 運營의 妙를 期하지 않고서는 所期の 奉仕를 할 수 없기 때문에 以上 세가지 問題를 略述하여 奉仕展開에 뒷바침 하고자 한다.

#### ■ P. R.

所謂 現代를 P.R.과 아이디어時代라고 할 만큼 P.R.의 重要性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例컨대 어린이들 까지도 <感氣>하면 <판토·판토>하고 即席에서 處方을 내리듯 우리 圖書館도 이처럼 無意識中에 住民이 엮어 낼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더구나 社會의 認識不足으로 度外視 當하고 있는 公共圖書館이 아무리 훌륭한 奉仕를 展開하고 있다 손치 드라도 이것을 모르는 市民이고 보면 의례 <圖書館에는 冊이 있는 곳>으로 밖에는 더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萬一 <圖書館에 冊이나 쌓아 놓고 利用者에게 보여 주면 그뿐이지>하는 式의 思考方式을 가진 圖書館職員이 百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는 마치 商品을 만들어만 놓으면 팔린다는 商術이 不足한 企業人의 經營觀과 다를바 없는 것이며 前近代의인 管理者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即 오늘의 經營은 어떻게 하면 팔릴 수 있는 製品을 考案해서 이를 生産하여 보다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냐 或은 제대로 팔리지 않을 製品이라 할지

라도 어떻게 하면 既往에 이미 만들어 놓은 在庫를 全部 팔아 치울 수 있겠느냐 하고 갖가지 研究에 研究를 거듭하거늘, 圖書館 參考室이 市民의 궁금症을 풀어 주는 곳, 各種 인포메이션은 勿論 甚至於 全國의 電話番號까지 단 몇분만에 아리켜 주고 있다는 事實을 市民이 모르고 있다면 이와 같은 圖書館奉仕는 마치 品質이 좋은 製品을 만들어 놓고도 팔 줄 모르는 愚鈍한 經營者와 恰似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大衆의 知識은 社會發展에 따라 그 水準이 高度化되어 가고 있고 또한 言論의 發達로 P.R.의 內容에 對한 大衆의 判斷力도 높아가고 比較的 正確해져 가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여기에 圖書館의 P.R.이나 그 內容도 讀書를 強要하고 圖書館利用을 強要하는 式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때 그때에 提起되는 問題點이나 궁금한 일을 풀고 살아 가려면 冊을 읽고 圖書館을 利用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住民의 雰圍氣를 造成하는 心理開發에 重點을 둔 P.R.의 展開가 最上의 方案이 아닌가 생각된다.

P.R.을 하기 爲한 媒體의 選擇과 그 方法 및 地域住民들과 接近할 수 있는 奉仕內容을 精選 檢討하여 正鵠를 쫓아 바라는 效果를 걸우지 않으면 안된다.

짧고 印象的인 말, 簡單하고 알기쉬운 文章, 魅力的이고 色다른 表現이 P.R.의 成敗를 左右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事實은 우리가 民間放送에서 하루 20時間以上 흘러나오는 商業放送中에 1분짜리 C.M.에서도 能히 가려낼 수 있다.

日前に 茶房에서 어느 人士와 얘기를 나누던 中 筆者가 圖書館에 關係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분 말이 <圖書館에 書信이나 電話로 問議해도 回答을 해 준다는데 도대체 그 手數料는 얼마씩 받고 있으며 電話는 어디다 걸어야 하느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筆者가 于先 생각한 것은 <P.R.內容에 조금만 더 神經을 썼더라면> 했다. 그것은 圖書館의 P.R.이 參考回答을 取扱하고 있다는데까지는 됐으나 問題되는 것은, 바로 媒體가 新聞이나 雜誌였다면 本文의 活字보다 電話番號의 活字를 좀 큰 것으로 使用했어야 했고, 放送을 할 때 어나우서가 電話番號를 두번쯤 읽어 주었다더라면 記憶에 남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런 電話番號는 간단하고 記憶하기 쉬운 數字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常識의 일이다.

要는 圖書館에 그와 같이 편리하고 좋은 奉仕制度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手數料 云云하는 것을 듣고, 새삼 P.R. 內容의 正確을 期해야 한다는 아쉬움을 느꼈다.

한 가지 말해 둘 것은 P.R.이란 自己 自身이 直接 하

는것 보다 他人이 해 주는것이 보다 効果的이고, 他人中에서도 메스·كوم니케이션의 擔當機關이 해야만 그 影響力이 크다는 것은 明確한 일이다.

그래서 新聞社나 放送局의 編輯者나 記者와 잘 사귀어 協助를 받는 일이 重要하다고 본다. <記者와 싸우는 사람은 機關車와 싸우려는 거와 같이 어리석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들이 圖書館에 不滿을 갖지 않도록 協助해야 한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記者나 編輯者에게도 언제나 恒常 소오스나 記事資料가 남아 돌아가도록 豊富한 것은 아니다.

어쩌다가 記者의 來訪이 있으면 그때 그때 새로운 圖書館의 消息을 빠짐없이 提供해주고 그들의 取材活動을 積極도와 주면 된다.

특히 新聞社의 調査部나 文化部, 放送局의 編成課에서는 恒常 圖書館의 資料를 要求 利用하도록 資料를 갖추어 준다면 P.R.問題도 自然히 解消될 것 이라 본다.

#### ■ 아이디어 創案

圖書館에 있어서, 아이디어의 源泉이라고 할까, 創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館長이나 어떤 特定한 職員에게만 限한 問題가 아니다. 職員 個人에게도 그들의 色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아이디어라면 새로운 것만을 發掘해 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既存하는 여러가지 要素를 뜯어 고치고 加味하고 새로 組立해서 立地的 條件에 圖書館奉仕가 中할 수 있는 다른 形態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도 創案의 하나인 것이다. 即 가까운 日本의 公共圖書館이 하고 있는 奉仕內容을 우리 形便에 맞도록 고쳐서 利用한다고 해서 模倣이라고만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必要로 하는 아이디어는, 貧弱하기 이룰데 없는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豫算을 考慮해서 돈 안 드리고 住民生活와 接近하는데 더 바랄 바 없는 그런 아이디어라야만 한다.

簡單한 例를 든다면 지금까지 逕信會에서 發行하여 오던 從來의 地域別 電話番號簿를 世界出版社에서 <全國職業別 電話番號簿>로 만들어 大人氣를 獨차시키고 있는 것을 들 수 있겠다. 即 電話番號簿를 出版하는 目的이나 거기에 所要되는 印刷費는 逕信會나 世界出版社가 모두 같다. 그러나 똑같은 電話番號簿이면서도 電話加入者를 職業別로 分類, 電話加入者를 便宜하게 찾을 수 있도록 編輯했다는데 絶讚을 받고 있다. 따지고 보면 兩電話番號簿가 大同한 가운데 小異가 있을뿐이지만 그 아이디어는 높이 評價해야 할 着想인 것이다.

또 한가지 例를 든다면 約 20年前만 해도 美國의 家庭主婦들은 主人이 飛行機旅行을 하는 것을 大端히 싫어했다. 勿論 事故로 因한 危險性때문이었다. 이로 因하여 United Air Lines 航空會社에서도 赤字에 허덕여 破産直前に 到達했었다. 이때에 이 會社의 제퍼슨이란 아이디어·맨의 發案에 依하여 <飛行機로 旅行하는 손님으로서 夫人을 同伴할 境遇, 御夫人의 飛行機料를 無料로 서어비스 하겠습니까>라는 廣告를 내세웠다. 이것을 契機로 이 機會에 公짜로 飛行機를 타 보겠다는 家庭主婦들이 몰려 들기 始作, 旅行者는 늘고 次次 恐怖心도 解消되어 마침내는 이 會社의 運營이 순식간에 黑字를 올린 일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렇게 아이디어란 만 것이 아니다. 圖書館의 경우도 展開하는 館內外奉仕가 住民生活와 直接的으로 關聯을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創案하여 住民이 즐겨 圖書館을 利用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圖書館奉仕에 辭한 住民들이 우연히 圖書館앞을 지나다가도 圖書館을 찾아 들어오지 않고는 못배기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가지 提案하고 싶은 것은 月1回 或은 週1回씩 開催되는 各圖書館의 職員會議를 利用하여 아이디어 세미나 같은 것을 30分씩만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館長訓示, 指示事項 程度의 것이라면 回覽으로 足할 것이지 뭐 그리 大端한 일을 다룬다고 바쁜 시간에 全職員을 集合시켜 時間을 浪費해야 할 것이나 하는 것이다.

勿論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이 社會에 아직까지 뿌리 박고 있는 官僚的인 潛在意識때문이지만——

月1回 30分程度 各自 擔當業務分野의 改善한點, 是 正했으면 하는 意見을 마음놓고 發表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雰圍氣의 아이디어 세미나를 가져 보자는 것이다. 그 모임의 名稱도 職員會議라는 從來의 딱딱한 語彙를 避하고 給仕서부터 館長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서 自己의 意思를 發表할 수 있는 그런 雰圍氣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前述한바도 있거니와 아이디어란 반드시 館長이나 幹部職員만이 創案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擔當職員이 自己가 맡은 業務를 遂行하는 동안 느끼고 생각하고 他圖書館과 比較해 보고 얻은 結果는 館長이 한달에 한두번 보아온 着眼點과는 尙당한 差異가 있는 것이며, 또한 이 세미나에서 採擇된 아이디어를 곧 實行에 옮기도록 한다면 提案한 職員의 滿足感은 그 職員의 士氣를 북돋우어 줄 수도 있는 問題이다.

한 例로 閱覽室 出入口의 門은 大小를 가릴것 없이 door式이라야 한다. 그것은 出入門이 window式의 옆으로 열고 닫고 하는 것이라면 소리가 요란하게 나기 때문인 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13면에 繼續)

을 수가 없습니다. (李鍾禧, 交通公務員教育院圖書館)

■ 全體會議

[問] 政府關係圖書館의 統合問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재영, 農村振興廳圖書館)

[答] 전에 內閣事務處에서 論議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都市計劃面이나 行政의인 面으로 볼때 隘路가 많아 實現되기 어렵습니다. (議長)

[問] 圖書館의 館種別 等級이 미리 定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바꿀수도 있는 것인지요? (申瑢俊, 濟州道教育研究所)

[答] 圖書館協會에 加入할때 各 圖書館이 希望되는 等級을 定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程度 伸縮性이 있는

것입니다. (張仁植, 圖協事務局長)

■ 決議事項 및 建議事項

1. 圖書館從事者의 待遇改善을 爲한 對關係要路活動 展開(各區出身 國會議員 및 關係要人에 對한 Pen Pal 其他 請願運動實施)

2. 特殊圖書館部會에 對한 豫算策定(主로會議費)을 圖書館協會에 建議.

■ 閉會宣言

議長: 以上으로 66年度 第5回 全國 特殊圖書館大會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34面에서 繼續)

그러나 建築 當時 設計者의 미스로 閱覽室의 出入門이 window 式으로 돼 있었다면 即時 밀고 닫는 door로 門을 고쳐서 閱覽空氣를 害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境遇, 門을 고치기는 커녕 設立된지 5·6年이 지나도록 그대로 放置해 놓고 使用하면서도 <圖書館의 奉仕는 이렇고 저렇고 ……>云云한다면 果然 그 圖書館 奉仕의 意義는 어디서 찾아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새로운 閱覽者가 門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에 出入門쪽을 1分間에도 10餘回씩 쳐다보게 되는 數 많은 利用者들의 安定感같은 것은 아랑곳 없이 말이다.

■ 運營의 妙

오늘날 現代國家의 機能이 量的으로 擴大되고 質的으로 專門化 되어감에 따라 圖書館의 業務도 完全히 專門化되었고 그 內容도 圖書館史上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넓어졌다.

이와 같은 圖書館의 多樣한 業務와 奉仕內容을 合理的으로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充分한 豫算·綿密한 計劃·有能한 職員의 積極的인 活動姿勢가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圖書館의 發展을 敢히 云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筆者는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運營者는 적어도 充分한 豫算을 確保할 수 있는 能力의 所有者로서 圖書館問題에 精通하고 圖書館의 아이디어·멘으로서 나아가서는 守衛·給仕·分類編目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運營者가 要請된다고 본다.

그것은 地方에 散在하여 있는 舉皆의 公共圖書館의 職員은 5名 內外라 해서 틀린 推算이 아니거늘, 누가 參考奉仕를 하고 누가 5원 미만의 料은 入館料를 받고 앉아 있어야 하고 資料를 整理해야 하고 清掃을 할 職員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다.

管理者의 手腕에 따라 豫算을 보다 많이 確保하느냐 그리고 그와같이 적은 豫算을 가지고도 市民奉仕를 展開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모두 決定된다고 본다.

그래서 筆者는 적어도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管理者라면 一生一代를 圖書館界에 불사르겠다는 確固한 信念만이 圖書館運動(社會教育)을 成功的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본다.

世界에 손꼽히는 屈指의 圖書館들도 따지고 보면 오늘의 成長을 이룩하기 까지에는 갖가지 難關을 파헤치고 現時點에 이른 것이다.

職員의 끊임없는 研究와 教育에서 오는 積極的인 奉仕만이 社會에 度外 視되고 있는 韓國의 公共圖書館을 建設해 나가는 道를 알고 公共圖書館人은 社會發展에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加速하는 現代史에 恒常 遲刻을 免치 못할 것이다.

要는 地域社會에 圖書館을 끌고루 심고 圖書館奉仕를 깊고 넓게 퍼기 爲해서 말이다.

實로 關心이 많은 이 主題를 本人이 맡아서 그 問題點을 充分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罪悚하게 생각합니다.

(尾)